



**세계 최대·최고가 명품 '말'** 18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장에서 개막된 '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 특별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유리 장인 피노 시노레토(Pino Signoretto)의 작품 '말'(2x3m, 시가 10억원)을 감상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 환상의 유리공예 관객들 '탄성'

### 문예회관 전시장서 개막

이탈리아 전통 유리 공예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 특별전이 18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전시장(구 시립미술관)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개막식이 열린 이날 광주에 첫발을 내디딘 베니스 유리 공예의 환상적인 자태에 관람객들의 탄성이 이어졌다. 관람객들은 인간이 빛을 가장 아

름다운 선과 곡선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리 작품을 감상하며 미소지었고, 금세라도 살아 움직일 것 같은 정교한 형상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이날 개막식은 오후 2시 광주문예회관 소강당에서 열린 프레오폰으로 시작했다. 광주지역 일선 초·중·고교 교사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프레오폰은 풍부한 동영상 상영과 전문가 강의 등 유리 공예의 역사와 산업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펼쳐졌다.

이어 오후 4시에 열린 개막식에는 송귀근 광주시행정부시장, 이상면 전남도정무부지사, 안영를 광주지방방법원장, 이재민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 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이상열 조선대 부총장, 박지택 광주시립미술관장 등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송귀근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전시는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유리 공예와 산업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광주일보사와 광주시립미술관이 주최하고 주한이탈리아대사관, 주한이탈리아문화원이 후원하는 '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 특별전은 오는 8월22일까지 열린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 문의 062-511-0349.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나이지리아 잡고 16강 간다

### 관련기사 2·3·14·15면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은 18일 (한국시각) 아르헨티나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1-4 완패를 당한 후 라커룸으

**학교 설립 56주년 (1954~2010)**  
**광신대학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커다란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 태극전사 아르헨전 패배 잇고 23일 결전 대비 총력

로 들어온 태극전사들에게 절박하게 한마디만 건넸다. 나쁜 기억을 빨리 잊고 한국의 월드컵 출전 사상 첫 16강 달성 여부를 판가름할 나이지리아와 조별리그 3차전 (23일 새벽 3시30분·더반 더반스타디움)에 집중하자는 비장한 결의다. 선수들은 예상 외의 충격적인 패배에 대화를 나누는 것을 자제할 정도로 대표팀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두웠다. 그러나 실의에만 빠져 있을 수 없었던 대표팀은 곧바로 나이지리아와 최종전 준비에 들어갔다. 경기 후 요하네스버그 프레테야호텔로 돌아와 늦은 점심을 먹은 선수들은 곧바로 나이지리아-그리스 2차전 경기를 TV로 관전했다. 그리스가 2-1 승리를 거두면서 나이지리아는 2연패에 빠졌고 태극전사들은 나이지리아의 실점 장면을 분석하며 3차전에서 반드시 이겨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 염원을 이루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선수들은 짐을 챙긴 후 버스를 이용해 차량으로 두 시간 거리의 베이 스텍스프린 루스텐버그의 숙소 헌터스 레스토랑으로 돌아왔다. 도착 후 간단한 저녁을 챙겨 먹은 선수들은 고단한 하루를 마감하고 일찍 잠자리에 든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에 복귀한 선수들은 하룻밤을 보내고 현지시각으로 18일 오전 11시 올림피아파라에서 회복 훈련으로 쌓인 피로를 풀고 나이지리아를 대비한 본격적인 탐침질로 컨디션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르헨티나에 크게 지고 나서 베테랑 수비수 이영표(알 힐랄)는 "아직 월드컵이 끝나지 않았다. 어차피 그리스 및 나이지리아와 경기에서 승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서 "우리가 강팀이고 16강 진출의 자격

### 주말·휴일 월드컵

	<b>E</b>	
	<b>D</b>	
	<b>E</b>	
	<b>F</b>	
	<b>F</b>	
	<b>G</b>	

### 스코어 보드

멕시코 (1승1무 2 **B** 0 (1무1패) 프랑스  
 이 있는 팀이라면 오늘처럼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었을 때 정신적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백두산 2014~15년 화산폭발"

지진 잦고 화산가스 방출... 폭발만 아이슬란드 화산의 1000배 피해

### 국가차원 대책 마련

휴화산(休火山) 상태인 백두산이 수년 안에 폭발할 개연성이 있으며 분화하면 올해 '항공대란'을 불러온 아이슬란드 화산보다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돼 기상청이 국가 차원의 재난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윤성호 부산대 지구과학교육과 교수는 지난 16일 기상청 주최의 '백두산 화산 위기와 대응' 세미나에서 2014~2015년 백두산 화산이 폭발할 수 있다는 중국 화산학자들의 견해를 전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정확히 언제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가까운 장래에 백두산이 분화할 조짐을 보이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런 조짐으로 2002년 6월 중국 동북부 왕청현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일어나고서 백두산에서 지진이 10배로 잦아진 점, 백두산 천지의 지형이 조금씩 솟아오르는 사실이 위성 촬영



으로 확인된 점, 백두산 정상부 호수인 천지(天池)와 인근 숲에서 화산 가스가 방출된 점 등을 제시했다. 지진파형 분석 결과 백두산 지하 약 10km, 20km, 27km, 32km에 액체 상태의 마그마가 네 겹으로 분포한 사실이 드러났고, 위치는 천지 바로 아래로 추정된다고 윤 교수는 소개했다. 그는 "올해 봄 아이슬란드 화산의 분출물은 0.11km였으나 대량의 수증기가 생기고 폭발로 화산재가 날려 피해가 컸다. 정상부에 20억의 물

담은 백두산이 분화하면 이보다 훨씬 심각한 화산폭발이 일어날 것이다"고 예측했다. 일본 학자의 최근 추정에 따르면 백두산이 10세기 중반에 대규모 분화를 일으켰을 때 분출물 양은 83~117 km로, 지난 아이슬란드 화산폭발의 1000배에 달했다. 백두산은 고려 시대인 서기 946과 947년 각각 대규모로 분화했으며, 당시 화산폭발지수(VEI)는 7.4로 인류가 역사 기록을 남긴 지난 수천년간 가장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 제 17회 무등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

2010. 6. 14(월)~5. 21(월) 무등경기장 야구장

전국시·도 대표 23개팀 출전

주최: 광주광역시체육회, 광주광역시교육청  
 후원: 광주광역시체육회,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야구협회, 광주광역시야구연맹회, 광주광역시야구협회, 광주광역시야구연맹회, 광주광역시야구협회, 광주광역시야구연맹회

문의: 광주광역시체육회 (062-271-1111) / 광주광역시교육청 (062-271-1111)